



보도시점

2026. 10. 21.(수) 15:30

배포

2026. 10. 20.(화) 16:00

국가AI전략위, 대구서

'제조·로봇·모빌리티 AX' 정책현장 방문

- 하정우 부위원장, 강원에 이어 대구·경북 연이어 찾아 지역 AX 현장 직접 챙겨
- 'FIX 2026' 개막식 축사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대구 미래산업의 AI 대전환 강조
-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엘앤에프플러스 방문해 중소기업부터 선도 기업까지 제조 AX 현장 살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강원 평창·강릉·동해 방문(10.19.~20.)에 이어 곧바로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다고 밝혔다. 첫날인 10월 21일(수)에는 대구에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 개막식에 참석하고, 지역 대표 산업의 AX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강원에 이은 연속 현장 행보로, 지난 8월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통해 대경권을 '첨단 소재부품·AI 로봇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한 데 발맞춰, 이차전지·모빌리티·로봇 등 대구·경북 성장엔진 산업의 AX 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엑스코] 'FIX 2026' 개막식 축사 및 전시장 관람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위원회 송혜자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6)'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올해로 3회째인 FIX 2026은 'AI, 기술을 넘어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국내외 510개 기업이 2,100개 부스 규모로 미래모빌리티·로봇·AI·ICT·스타트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대구는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등 AI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탄탄한 제조 기반을 갖춘 도시”라며, “AI가 기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시민의 일상으로 퍼져 나가는 변화를 대구가 앞장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막식 이후에는 동관과 서관 전시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참가 기업들의 기술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장 주재 오찬에서 지역 AX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달서·달성] 중소기업 AX 지원 거점과 제조 AX 선도 공장 잇달아 방문

오후에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의 AI 기반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찾았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고성능 컴퓨팅(HPC)과 GPU 서버 등을 갖추고, 중소·중견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을 가상 환경에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년간 180여 개 기업이 센터를 활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였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센터 현황과 기업 AX 사례를 듣고 시설을 둘러본 뒤, 성서산단과 같은 노후 산단이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구시 및 센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달성군의 엘앤에프플러스 공장을 찾아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전 공정에 제조 AX가 적용된 현장을 둘러보았다. 엘앤에프는 대경권 성장 엔진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이곳의 ABB 실증팩토리는 디지털 트윈 컨소시엄(DTC)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정의 제조(SDM) 테스트베드 사례로 공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첫날 일정을 마치며 “오늘 둘러본 모빌리티·로봇·이차전지 현장은 모두 대경권 성장엔진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며, “중소기업부터 선도 기업까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히 살펴보고겠다”고 밝혔다.

22일(목)에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하여 포항테크노파크 경북AX랩, KIRO 안전로봇실증센터, 포스텍, 포항 Neo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민자영 (02-2224-4181)
		담당자	사무관	김중훈 (02-2224-4183)
		담당자	사무관	유승희 (02-2224-4189)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